

글로벌 대학 선정 '1000억짜리 전쟁' 시작됐다

교육부, 지정계획 공개·8월 10여곳 선정... 학교당 5년간 천억 지원 지난해 '예비대학' 전남대 유리한 고지... 조선대·목포대 등 '총력'

전남대가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선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전남대는 지난해 글로벌 예비대학으로 지정되고 도 분지정 평가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선정에서 '예비대학' 지위를 인정받아 곧바로 분지정 평가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최근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2024년 글로벌대학 지정계획(시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22일 광주 힐리데이인 광주 호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Glocal, Global+Local) 사업은 수도권

을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 육성책의 하나로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만한 역량이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파격 지원'을 해 대학은 물론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순천대 등 15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30곳을 글로벌 대학으로 지정해 1개교당 5년간 1000억원을 파격 지원한다.

교육부가 공개한 시안에 따르면 올해에도 대학 안팎과 대학 내부의 경계를 허무는 대학 10곳 내외를 글로벌대학으로 선정해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무(無)학과 제도, 융합 전공, 자기 주도 설계 전공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대학 거버넌스에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 외부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대학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 구조를 유연화하거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 방식의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대학들도 교육부가 그리는 글로벌대학에 가까운 모습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다음 달 1일 올해 글로벌대학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3월 22일까지 글로벌대학 예비 지정 신청서(혁신기획서)를 받는다.

이후 4월 중으로 최대 20곳을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한다.

지난해 예비 지정을 통과하고 분지정에서 고배를

마신 전남대 등 5개 대학은 작년 계획 방향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예비 지정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도 글로벌 대학 선정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조선대는 최근 구성된 범조선글로벌추진단을 꾸리고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범조선대글로벌추진단은 대학 내부 공모와 추천을 받아 교직원 52명으로 구성됐다.

김춘성 총장이 직접 범조선글로벌추진단 회의에서 정부의 글로벌 대학 선정 방향과 조선대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등 교직원들의 역량을 모으고 있다.

목포대도 전남도립대와 2025년 2월 28일까지 통합하는 내용의 '대학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글로벌 대학 선정평가를 고려한 행보다.

지난해 부산대와 부산교대의 경우 현 부산교대를 이전해 초·중·고·평생교육을 아우르는 새로운 종합 교원양성대학을 구축하겠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2025년 3월 통합을 목표로 하는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한국국학진흥원 등 경북도 7개 교육·연구 기관과 함께 통합 운영하면서 인문학에 특화된 공공형 대학 혁신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강원대와 강릉원주대는 '1도 1국립대' 구축을 목표로 강릉, 원주, 춘천, 삼척에 흩어진 캠퍼스에서 공동 원격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글로벌대학 선정에서 지역별·대학 유형별 안배는 없을 예정"이라면서도 "국립대, 사립대, 전문대 등 평가위원별 패널을 구성해 대학 유형별 특성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문화전당으로 예술산책 21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내 복합문화2관에서 열린 '이음지음' 전시에서 방문객들이 셀레스트 부르시에 무주노 작가의 '클리나맨'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수원, 한빛원전 수명 연장 밀어붙이나

영향평가 공람 보류 영광군·함평군 상대 행정소송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4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수원이 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에 대해 지난 17일 '부자유 위반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개 지자체가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초안을 지자체에 제출했으나 3개월이 경과하도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또 지자체의 보완요구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현재 4개 지자체는 평가서 초안에 주민 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주민공람을 미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광군은 주민 피폭선량 평가와 중대사고 결과를 초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안군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각 변별 주민총피폭선량을 표기해달라고 했다.

함평군은 기상조건을 추가해 방사선 물질 이동에 측 평가를 보완하고 계절별 변화를 고려한 온배수 확산과 사고시 주민 안전을 위한 방재내용을 보완

할 것 등을 요청했다.

고창군은 최신 기술 수준을 적용해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는 보완요구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광주·전남 환경단체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한수원이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철회하고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자체는 주민 생활과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이런 상식적인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한수원의 태도는 호남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남학생교육수당 오늘부터 1차 접수

내달2일까지... 목포·여수·순천·광양 초교 중 2월 개교 대상

전남교육청이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전남학생교육수당 1차 신청을 받는다.

1차 신청 대상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 2월에 개학하는 학교다.

목포는 목포신성초·목포유달초·목포동초·목포임성초·목포영산초·목포부주초·목포백련초이고, 여수는 여수동초·여수남초·여수한려초·울촌초·성산초가 해당된다.

순천은 순천도사초·신대초, 광양은 옥룡초·옥곡초·성황초·광양양강초·광양칠성초가 신청 대상 학교다.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교에서 학생과 보호자 관계를, 학생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치고 도교육청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해 수당을 지급한다.

전남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진행하면 된다.

3월에는 신입생을 포함해 초등학생 전체를 대

상으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교육수당 지급은 3월부터 매월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이뤄지며, 바우처카드는 2월 26일부터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은 전남학생교육수당 신청과 관련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수당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및 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올해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남 16개 군 지역(무안군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을,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매월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양동 광주천서 50대 추정 여성 시신 발견

광주천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경 광주시 서구 양동 광주천에서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광주천 인근을 산책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가 숨져있는 것을 확인하

고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숨진 지 10일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되며, 물 속에 잠겨 있어 발견 당시 부패는 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범죄연관성 및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장
김경윤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학 과	모집인원	정 시
인문 사회	신 학 과	○	
	한국어교육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	
사 법	유아교육과	○	
	음악학부	○	
예 능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총 계		○○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2(금)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법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원서접수: 2024. 1. 11(목) ~ 24(수)
전형일: 2024. 1. 26(금) 오후 2시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길 36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1. 3(수) ~ 6(토)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